중국의 위엔화 1달러에 7위엔대로 절상

중국의 인민 위엔화가 5월 16일자 신문에서 그 동안 8위엔대를 파팔(破8)하여 7위엔대로 절상되었다고 크게 보도하였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중국의 가장 큰 수출품인 섬유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작년 7월에 관리 변동 시세제로 바뀐 후로 절상되어 각 기업들이 각양각색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작년 7월의 위엔화 절상으로 손해를 본 저쟝성(浙江省)의 낭사(浪莎) 집단은 2006년 5월부터 계약서에 외환 변동에 따라 제품 가격을 조정한다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어, 이번 외환 변동은 영향이 없다고 한다.

광둥성(廣東省)의 사려국제집단복장(絲麗國際集團服裝)은 작년부터 장기간에 걸친 대량 계약을 맺지 않고, 단기、소로트 계약으로 분할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있으며, 전번의 광저우(廣州) 교역회에서 이미 가격을 5% 올렸으며, 이번의 조정은 예상한 정도이므로 영향은 적다고 한다.

쟝수성(江蘇省)의 홍두집단(紅豆集團)은 위엔화가 절상되면 수출의 판매고를 줄여 섬유 산업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도 단숨에 절상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려왔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연간 1억 2천만 달러의 수출 실적이 있는 산둥성(山東省)의 니트 기업은 작년 2 % 절상으로 2천만 위엔을 손해 본 사례를 소개하며, 섬유 기업의 이익률은 원래 낮기 때문에 이익률이 5%라고 할 때 환율이 2.5% 절상되

면 이익은 반감하므로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비관적인 보도가 있다.

중국에 있는 일본계 기업의 반응을 보면, 인민 위엔화의 달러에 대한 시세가 서서히 올라 8위엔을 깨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나 급격한 위엔화 절상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계속 홍콩 달러의 수준까지 서서히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는 그런 것을 감안하여 경영 계획을 짜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 차입금은 달러로 되어 있어 경상 손익 베이스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영업 손익 베이스로 간접 수출은 마이너스, 조원료(粗原料) 구입에는 플러스로 작용한다.

중국에 있는 또 다른 일본계 기업을 보면, 이미 홍콩의 암(闇) 시세는 8위엔을 깨고 있었으므로, 이번의 절상은 시세를 뒤따라간 셈이다. 위엔화 절상은 수출을 주로 하는 봉제 공장에게는 역풍(逆風)이 된다. 인도 등과의 가격 경쟁력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소재(素材) 등의 배경을 고려하면 토털 경쟁력에서는 아직은 중국이 훨씬 강하다. 그래도 캄보디아 등으로 진출하여 구미 지역으로 수출하기도 하고 내수를 시작하는 공장도 있다.♣